

## 푸른길 문화근육화와 도심재생을 위한 컬처 엔지니어링(Culture Engineering) 프로젝트

### □ 배경 및 목표

- 최근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인식되면서 도시를 되살리는 ‘도시 르네상스 사업’이 국내·외를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진행 중임
- 특히 2000년대 이후 대규모 철거방식으로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는 장소중심의 리모델링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
- 광주 지역은 내년 국립아시아전당의 개관을 앞두고, 전당의 운영과 함께 지역의 문화자산 활용과 연계한 도심 활성화 논의가 어느 때 보다 활발하고 절실함
- 하지만 이미 도시개발 과정에서 근대 역사를 기억하는 문화전당 주변의 학원가 골목길과 가구점, 작은 공방과 상점 소멸 등 아쉬운 경험을 한 바가 있음
- 이에 국립아시아전당과 같은 새로운 자산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의 전통 문화자산들을 활용하여 이를 연계·활성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실행을 통해 성공적인 문화도시 건립을 달성코자 함

### □ 사업 내용

#### ○ 사업추진 기본방향

-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문화자원의 연계·활성화를 통한 문화근육 형성
- 지역의 전통 및 역사적 문화자산 복원을 통한 역사·문화거점 조성
- 유·무형의 효과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
- 디지털의 편리함과 더불어 아날로그 감성이 공존하는 인문·문화도시
- 지역의 역사성과 더불어 시민 공통의 기억이 함께 공유되고 만들어지는 친숙한 공간으로 조성
- 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거점들 (양동시장, 푸른길공

원, 광주골목길, 남광주역사)을 활성화 시키면서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문화지역을 조성

### ○ 주요 사업 내용

#### 가 광주 푸른길의 문화길 조성

- 푸른길의 문화길 조성을 통해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거점 조성
  - 사계절 걷고 싶은 길, 전국에서 걷기위해 찾아오는 길로 조성
  - 푸른길 주변 공·폐가를 독립 예술가(independent artist)들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여 자생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유도
- 사계절 푸른길 예술제/행사 운영
  - ‘365일 길 위의 예술제’ 개최를 통해 시민과 독립 예술가들의 자발적 협업을 통한 공공예술 프로그램/프로젝트 상시 운영
- 간이역사 설치 및 구간별 테마 길 조성
  - 푸른길 앱(App)을 통해 광주/푸른길의 사계(四季)를 보여주고, 간이역사에 설치된 인터랙션 장치와의 접촉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
  - 자발적 주민참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간/간이역사별 명예역장 임명 및 활동 지원

#### 나 전당 주변 유휴시설/건물의 문화적 활용을 통한 재생

- 구 교육청건물, 광주여고 건물 등 비어있는 역사적 건물들을 활용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
  - 학생들의 방학 및 광주비엔날레/디자인비엔날레 등 지역 예술제와 연계한 전국 청소년 예술 캠프 등 개최 장소로 활용
  -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 공간 조성, 전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와서 작품활동, 결과물 전시, 상설 갤러리 운영 등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작가 레지던시로 활용
  - 광주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의 시험/시현공간으로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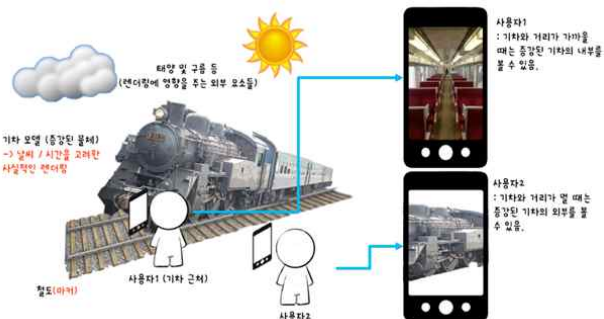
## 다 전통·역사적 문화자산 복원 및 활성화

### ■ 남광주역사(驛舍) 재건

- 남광주역/역사(驛舍)는 역사성과 더불어 지역민의 생활상이 녹아있는 공통된 기억을 가진 친숙한 장소로 공간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큼
- 현재 주차공간으로 조성된 원부지와 별도로 지상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옛 역사(驛舍)의 일부를 상징적으로 복원
- 일부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이 지역 삶의 역사/전통과 오늘날 일상 간에 끊어진 시간적 맥락의 가닥을 이어 주는 공간으로 조성

### ■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의 편리함이 공존하는 공간

- 경전선이 사라진 푸른길 구간에 '디지털 미디어 월' 설치
- 지역의 대표적 인물, 예술품, 문화자산 등이 디지털로 증강되어 미디어 파사드 형식으로 전시
- 가상 콘텐츠 증강을 통한 사라진 경전선 철도와 기차의 디지털 복원
- 정해진 장소/시간에 기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기차를 스마트 기기를 통해 확인



[그림.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 가상 콘텐츠 증강을 통한 경전선 복원]

### ■ 오래된 골목길 보존과 오래된 상점 복원/운영을 통한 노스텔지어(鄉愁,

### nostalgia)의 공간 조성

- 도시 개발로 골목길의 실체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, 사라진 실체에 대한 향수는 골목길의 문화적 소비상품 즉 관광의 대상이 되게 함
  - 양림동은 물론 아시아문화전당과 인접한 동명동, 산수동, 계림동일대 옛 골목길의 정취를 살리는 공간 조성
  - 주변의 푸른길과 오래된 마을 골목간의 연계지점에 '타임터널' 같은 조형 설치,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느끼도록 함
  - 골목의 주요 촬영 지점에 스마트 우편함을 설치, 스마트폰과 연동을 통해 사진을 전송하고 주소와 메시지를 남기면, 선택한 날짜에 엽서와 함께 우편으로 배달
- ### ■ 양동시장의 노팅힐 게이트화(Notting Hill Gate)
- 노팅힐 포토벨로 마켓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중고품/골동품시장 중 하나로 런던을 찾는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임
  - 전통·재래시장과 만물상의 이미지를 강조하고, 홈페이지 구축과 양동 App 개발/활용으로 호남 최대의 전통시장으로서 명성 회복 및 활성화
  - 양림동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푸른길, 아시아문화전당, 대인시장, 충장로, 양동시장으로 이어지는 연장 투어 프로그램 개발

## ○ 가치 및 효과

- 지역의 역사와 현재의 시민들의 일상이 공존하는 장소로서 문화자산의 복원과 활성화는 일부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이 지역 삶의 기억/전통과 오늘날 일상 간에 끊어진 시간적 맥락의 가닥을 이어줄 수 있는 계기 마련 함
- 아시아문화전당 일대는 지역사회 공통의 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/문화적 발전의 초석으로서 지역의 역사와 유산적 가치를 지닌 대상임
- 이러한 지역사회의 유산적 가치를 지닌 공통 문화자원의 복원과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은 지역의 문화적 성장은 물론 도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함
-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과 연계한 주변 지역자산의 문화근육화는 전당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광주

가 성장하는데 든든한 문화적 자양분이 될 것임

- 또한, 아날로그의 감성과 첨단 디지털의 편리함/화려함이 공존하는 도시재생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분야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과 더불어 국제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임